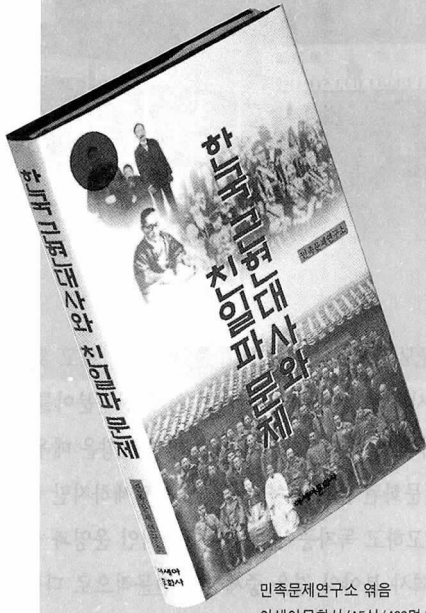


**친일파 문제 입체적으로 조망
논문의 형식과 깊이에 편차 심해**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



민족문제연구소 엮음
아세아문화사/A5신/428면/20,000원

해방 후 50여년 동안 한국에서 통용된 욕설(?) 가운데 가장 심한 말은 무엇이였을까? 그것은 아마도 '친일파' 또는 '빨갱이' 라는 말이였을 것이다. 그런데 두 단어는 무척 대척적이면서도 묘한 친연성이 있다. 보통 '친일파'는 '빨갱이'를 때려잡는데 앞장섰고, '빨갱이'는 '친일파'를 처단하는데 발벗고 나섰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서는 둘을 전혀 다른 차원에서 대접해왔다. 어느 사람에게 '친일파'라는 딱지가 붙으면 인격적으로는 치명타를 입을지 모르지만, 정치적·경제적으로는 별다른 손해를 보지 않았다. 오히려 우대를 받은 측면도 있었다. 반면에 '빨갱이'라는 딱지가 붙으면 신념의 면에서는 경외(?)를 받았을지 모르지만, 정치적·사회적으로는 매장 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일제의 침략에서 해방을 거쳐 지금에 이르는 100여년 동안 한국 근현대사의 모순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말 가운데 '친일파'와 '빨갱이'라는 단어처럼 정확한 것도 없을 것이다.

민족문제연구소가 펴낸 《한국 근현대사와 친일파 문제》는 이런 모순구조가 어떻게 형성되고 온존돼 왔는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잘 짚어주고 있다. 이 책은 '친일파'의 범주와 존재 모습,

'친일파'의 형성과정과 일제의 민족분열 정책, 군부의 '친일인맥'과 군부의 정치화 과정, '친일파' 청산의 실패와 일제잔재의 처리문제, 역대 정권의 과거사 처리와 대일정책 등에 대한 논문과 평론을 주제별로 나눠 실고 있다. 각 주제의 말미에는 전문가들의 논평이 실려 있어 본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사항이나 불분명하게 서술된 내용을 보완해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 책은 단순히 개별 논문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라, 연구소에서 '친일파'를 주제로 개최한 학술회의의 내용을 간추려 편집한 책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토론회의 열띤 분위기를 느낄 수도 있다.

'친일파'라는 말은 한국사회에서 오래되고도 새로운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일제의 침략을 받기 시작한 19세기 말엽부터 사용되던 말이 해방된 지 50여년이 지난 시점에서 전혀 위력(?)을 잃지 않고 통용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그럼에도 '친일파'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서는 별로 없다. 19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본격적인 연구서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그것도 어떤 인물의 친일 행각을 폭로한다는 형식으로. 그런 점에서 이 책은 '친일파' 문제를 입체적·구조적으로 다룬 흔치 않은 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친일파' 문제를 연구하는데 길잡이가 될 것으로 믿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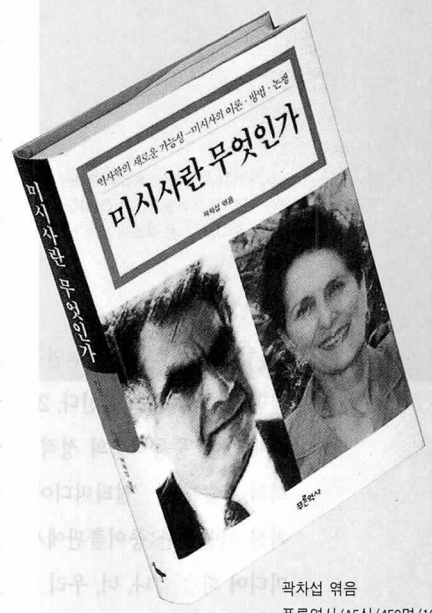
다만 한가지 아쉬운 점은 논문의 형식과 깊이에 편차가 심하다는 것이다. 학술회의의 발제문을 토대로 정리한 글이라 하더라도 분량·각주 등에서 통일성을 기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이 책에는 '친일파' 문제를 붙잡고 10년 동안이나 힘겨운 씨름을 계속해온 민족문제연구소의 정성이 짙게 배어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이 책을 계기로 '친일파' 연구가 역사학의 한 분야로 정착되기를 기대한다.

정재정

서울시립대 국사학과 교수. 저서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1892~1945》 외.

**미시사의 이론과 방법론 집대성
미시사 적용한 국내 연구성과 기대**

《미시사란 무엇인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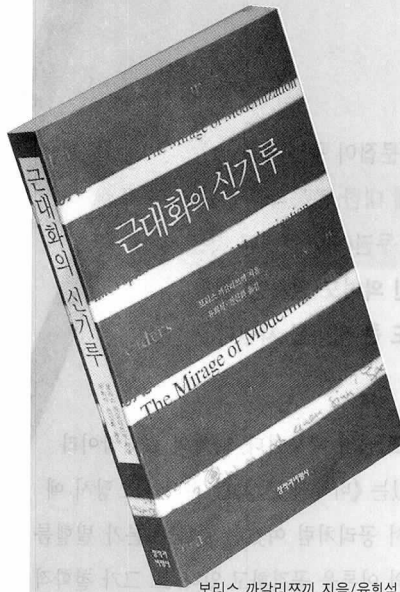
곽차섭 엮음
푸른역사/A5신/450면/19,500원

곽차섭 교수가 미시사 이론, 방법 그리고 논쟁을 다룬 주요 논문들을 엮은 《미시사란 무엇인가》가 번역, 출간됐다. 미시사란 한국 역사학계에서 더 이상 새로운 개념이 아니지만, 한국사학계에서 미시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 한 단면이 1997년과 1998년 《역사학보》 지면을 통해 전개된 이해준과 백승종의 논쟁이다. 이해준은 백승종의 연구가 미시사적 방법론에 의거했다고 하지만 기존의 사례연구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고, 백승종은 종래의 사례연구와 자신의 미시사적 연구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이 논쟁을 지켜보면서 이제는 학문적 사대주의에서 벗어나 외국의 새로운 연구방법론을 자기 것으로 소화하고, 그 결과물을 자चे 평가하는 한국사학계의 발전된 모습이 서양사 연구자에게는 부러울 뿐이었다.

《미시사란 무엇인가》 출간의 가장 큰 의미는 미시사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를 통해 한국사 연구자들이 종래 사회사의 한계를 분명히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한국사학계를 관찰해 보면, 최근 신문화사의 대두와 함께 일어나는 '문화적 전환'을 사회사의 범주

**제3세계 근대화과정 비판적으로 분석해
'새로운 전위' 형성에 관심 기울여**
《근대화의 신기루》



보리스 까갈리쯔끼 지음/유희석 외 옮김
창작과비평사/A5신/392면/12,000원

안에서 파악하려는 경향이 있다. 일상생활사, 역사인류학 그리고 미시사와 같은 역사학의 새로운 경향을 사회사의 경계 밖에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사회사 연구를 풍부하게 만들어 주는 것으로 자리매김하곤 한다. 현재의 한국사 연구에는 거시적 조망을 담은 사회사와 미시적으로 분석하는 미시사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전자로부터 후자로 역사연구의 경향이 바뀌는 구미 역사학의 흐름이 '비동시적인 것의 동시성'으로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인지 모른다.

종래의 한국 역사학은 민족, 계급 그리고 민중 등과 같은 거대담론에 입각해서 역사를 파악하는데 익숙해 왔다. 그런데 평자는 한국 역사학이 21세기 '열린 역사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이런 거대담론에서 탈피해야 하며, 이를 위해 미시사의 시각과 방법론을 한국사 연구에 적용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한국 역사학이 역사의 진보를 위해 인간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강조하는데 전념해왔다면, 미시사는 그런 역사가 인간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반성하고자 한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볼 때, 최근 유행처럼 나타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가'를 이야기하는 생활사는 결코 미시사가 아니다. 평균적인 인간의 삶을 일반화하는 것을 반대하는 미시사는 개개인의 구체적 삶에 대한 '흠뻑한(혹은 치밀한) 묘사'를 통해 역사의 큰 흐름과 구조를 읽어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평자가 아는 한 전 세계적으로 봐 미시사의 다양한 이론과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는 논문들을 모아 놓은 책으로 《미시사란 무엇인가》만한 책은 없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더 이상 미시사의 이론과 방법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적용해서 실제 연구성과를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미시사란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진정한 대답이다.

김기봉

성균관대 사학과 강사.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를 넘어서》외.

이 책의 저자인 보리스 까갈리쯔끼는 현실사회주의 체제가 붕괴된 오늘날에도 흔치 않은 사회주의의 '혁신법'으로 계속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의 대표적인 좌파인텔리 가운데 한 사람이다. 아이작 도이처상 수상작인 《생각하는 갈대》(역사비평사)와 《소련단일체제의 와해》 및 《변화의 변증법》(이상 창작과비평사)이 번역돼 있고, 이따금씩 《한겨레》에도 글이 실리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도 꽤 알려져 있다.

8개의 장과 한편의 보론으로 구성된 이 책은 2차대전 이후, 주로 1970~1990년대의 제3세계가 서구의 개발주의전략을 수용해 추진한 근대화가 일으킨 술한 사회·정치적 문제점들을 분석, 비판하고 그 나름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서유럽과 미국이 강요한 개발과 발전의 이데올로기인 근대화는 제3세계에서 경제의 물적 토대를 마련하는 등 일정한 건설적 계몽의 역할을 했지만, 그것은 약속한 미래를 실현시킬 수 없는, 사막의 신기루와 같은 것이었다.

근대화를 추진했음에도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풀기 어려운 술한 난제들에 봉착해 있고(제1장), 경제적 독립의 달성에 상당한 성과를 낸 나라에서조차도 개혁정권의 우경화와 IMF

요구에 따른 사유화조치 등으로 경제적 독립이 환상으로 변하고 있다(제2장). 또한 어디에서나 민주주의의 신장이 방해받고 있고, 1980년 후반기 이후부터는 인도의 모델도 위기에 처해 있으며(제3장), 서방의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와 자국의 반민주·식민지세력의 협잡으로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는 '신고대국가'가 출현했다(제4장). 나아가 이런 근대화노선은 중국과 쿠바의 사회주의 건설을 왜곡하고 있고, 제3세계의 혁명 과정에 많은 모순들을 일으키고 있으며(제5·6장), 공산주의체제를 탈피한 동유럽을 세계체제의 반주변부로 편입시키고 있다(제7장 및 보론).

그러나 이런 과정은 동시에 제3세계가 추진한 근대화와는 구분되는 새로운 대안을 추구할 필요성을 증대시킨다. 이와 관련해, 까갈리쯔끼는 근대화에 저항해온(진전과 실패 등으로 점철돼 온) 밑으로부터의 운동에 주목하면서 대안적 사회발전을 추구할 '새로운 전위'의 형성문제로 관심을 돌린다(8장). 여기서 그는 서구적 계몽주의로 무장한 개명한 소수집단도, '철의 규율'에 따라 움직이는 레닌적 전위도 아닌, 광범위한 민중과 연계된(자기교육이 가능한) 노동계급의 역할이 결정적이라 본다.

이 책은 제3세계 전체의 사회발전과정을 서술 대상으로 잡아 현상분석의 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그간의 제3세계 전체의 발전과정을 비판적으로 총괄해 보는데 도움을 주며, 한국사회의 개혁을 앞장서서 주창하는 시민운동세력조차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전환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전략을 근본적으로 반성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다. 무엇보다 이 책은 신자유주의적 발전을 넘어서 새로운 발전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주체의 형성 문제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한국사회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중요한 그의 문제제기를 우리 역시 함께 고민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김세균

서울대 정치학과 교수. 저서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외.